

1박 2일의 짝고도 긴 체험

- 뇌척수염 예방 백신 접종과 계란 집하·선별 실습 -



본고는 본 기자가 양계협회에 입사한 후 양계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하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본회 닭 경제능력 검정소를 방문, 실습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검정소 신동우 과장(뒤)과 함께 백신 접종하는 모습



▲검정소 내 가로수길

뇌척수염 예방 백신 접종

7월의 첫째 날, 검정소 실습을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안성행 버스에 올랐다. 출발 전, 실습 이틀 동안 '병아리 백신접종'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에서부터 1시간 남짓 달리자 '안성맞춤의 고장' 안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터미널까지 마중 나오신 우수동 소장님과 함께 검정소에 들어섰다. 검정소에 도착해 통과의레인 방문객 소독조에 들어섰다. 소독은 닭을 보호하기 위한 1차 관문이자 매우 중요한 단계로, 누구라도 예외없이 온 몸을 소독해야 한다. 소독조를 지나 검정소 식구들을 만났다. 바쁜 와중에도 귀한 손님이 온 듯 반겨 주었다.

일이 바쁜 관계로 인사를 나누고는 곧장 계사로 향했다. 도착한 계사에는 예상했던 '노란색', '삐약삐약' 병아리는 없고 17주령 된 중추가 있었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에 잠시 멈칫했다. 사실 서울 촌놈이다 보니 닭을 만져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백신접종은 한 사람이 닭을 잡아 주사기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2인 1조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접종은 뇌척수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생균) 작업으로 날개 안쪽에 주사 바늘을 찌러주는 식이었다. 찌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손을 뻗기가 어려웠다. 아직 성계가 아니라 공격성이 거의 없다는 말에 조금은 안심은 되었지만, 그래도 쉬 긴장이 풀리진 않았다. 처음엔 많이 느렸지만 하면 할수록 조금씩 나아졌다. 계속해서 백신을 주사하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

계란 집하실습

둘째 날 아침은 알을 걷는 것으로 시작했다. 자동화 벨트를 타고 계란이 한 곳으로 모아졌다. 정상란과 파각란, 탈색란으로 구분해 나뉘 담았다. 파각란이야 그렇다지만, 탈색란은 난각에 색이 제대로 침착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일 뿐, 정상란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소비자의 기호성 문제로 상품이 되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다.

이렇게 걷은 알들을 가지고 선별장으로 가서 중량별로 분리하였다. 계란 하나하나 무게를 재 봐야 하는데, 이 작업은 기특하게도 선별기가 다 알아서 해준다. 선별기 입구에 계란을 놓으면 무게를 달아 특란, 대란, 중란,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것들로 분리가 되어서 난좌에 척척 담겨 나온다. 입구에 넣고, 분리돼 나오는 것을 옮기기



▲ 자동화 무창계사



▲ 선별대로 들어가는 계란



▲ 중량별로 선별되는 과정

만 하면 되는 셈이다. 이는 일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시켜준다. 자동화의 필요성과 위력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알을 걷고 선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체험해 보고, 다시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한 번 해 보았기에 손이 조금은 빨라졌다. 하지만 다섯 명이 이틀 동안 1만 4천 수 닭에 백신을 접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족한 일손에,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온 종일 백신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득 선별기처럼 백신도 자동으로 주사해주는 기계가 많이 보급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닭을 옮겨가며 백신을 놓고 드디어 마지막 케이지. 주사기를 건네받고 직접 주사도 놓아봤다.

미숙한 솜씨로 뺨는 손이라 닭발에 찍히기도 하고, 계분도 묻혀가며 난리를 피웠지만, 이곳에 있는 닭들이 이들의 노력으로 뇌척수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짧은 만남, 긴 여운

검정소의 다양한 업무를 단 이틀 만에 모두 배워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현장 체험을 통해 양계농가에 조금은 더 와 닿는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역의 문제만 없다면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빼어난 경치를 뽐내는 검정소를 뒤로 하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정리 | 이경현 기자
i727i@naver.com



산란노계 출하 알선사업

본회에서는 산란계 산업 발전 및 농장의 안정적인 노계출하 기반을 확립하고자 산란노계 출하 알선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산란계 농장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대상 : 전국의 산란계농장
- ◆ 가격 : 연간 고정가 350원/수 (1.8kg기준)
- ◆ 대금결제 : 출하일 기준 다음주 금요일
- ◆ 신청 및 문의 : 본회 02)588-7651(담당 기영훈)